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1. 최근동향

<표 1> 주요기업의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기업	1999	2006	2012
총 시장규모(백만불)	16.896	16.553	17.785
제너럴 모터스(GM) (%)	29.4	24.6	22.8
포드(Ford) (%)	24.5	17.5	13.2
크리슬러(Chrysler) (%)	15.6	12.9	11.0
혼다(Honda) (%)	6.4	9.1	10.5
니산(Nissan) (%)	4.0	6.2	7.2
도요타(Toyota) (%)	5.7	15.4	17.5
기타	11.3	14.3	17.7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주요 3대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포드(Ford), 클라이슬러(Chrysler)의 미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기업의 미국 내수시장 점유율은 1999년 69.5%에서 2006년 55.0%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미국의 주요 3대 기업 미국시장 점유율이 2012년에는 47.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봄.

2. 미국의 주요 3대 자동차 기업의 부진 원인

- 미국 주요 3대 자동차 기업의 부진 원인으로 비용구조의 경쟁력 상실, 트럭 시장 집중에 따른 승용차 시장에서의 소홀, 유가 상승 및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기존 소비층의 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음.

□ 신세대(Generation Y)의 자동차 수요 점유실패

- 미국 주요 3대 자동차 기업 부진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베이비붐 세대(Generation Y)의 수요를 점유하는데 실패한 점임. 이들 세대의 특징은,
 - ①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 국내 자동차를 소비하는 미국의 기존 세대와 달리 미국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외국기업 제품 소비에 대해 유연함.
 - ② 자국 기업에 대한 애착보다는 디자인,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를 구매함.
- 이 때문에, 미국 3대 주요 자동차 기업은 신세대에게 더욱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외국 기업의 자동차에게 미국 젊은 세대의 수요를 내어주고 있음.
- 또한 OPEC 국가와의 긴장 지속 및 유가 급등으로 연료 효율이 더 좋은 외국 자동차로 젊은 세대의 선호가 넘어감에 따라, 미국 주요 3대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수시장 점유율의 하락이 가속화됨.

□ 트럭 등 대형차량의 소비수요 감소

- 미국 주요 3대 기업의 주요 이윤창출 품목이었던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수요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줄어들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rossover-utility vehicle: CUV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미국 내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게 됨.

3. 향후 전망

□ 미국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 전망

<표 2> 주요경제지표 전망

	2005	2006	2007	2008
미(美)실질경제성장률(%)	3.2	3.4	1.9	2.5
미(美)고용증가율 (%)	1.7	1.9	1.4	1.1
미(美)소비자물가상승률(%)	3.4	3.2	2.6	2.0
유가 (WTI, US\$/bbl)	56.56	66.12	67.43	73.75
미(美)주택건축 착공(백만건)	2.1	1.8	1.4	1.3
미(美)연방금리	3.21	4.96	5.15	4.5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 경제성장률

- 유가 상승, 미연방금리 상승, 주택 버블 붕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음. 미국 경제성장률이 2.0%에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에 더욱 유효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전망함.

○ 유가

- 유가의 상승으로 원료 효율이 낮은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ports-utility vehicles: SUVs) 등의 소비 감소 및 승용차,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rossover-utility vehicle: CUVs)의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 때문에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존적인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주요 3대 자동차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건축 착공

- 주택건축 착공은 올해 1.38백만건으로 1991년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하락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트럭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ports-utility vehicles: SUVs)의 판매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연방금리

- 2007년 미연방금리는 5.15%로 상승하였으나, 현재의 신용경색 및 소비자 소비 심리 위축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연방은 2008년에 미연방금리를 4.5%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자동차 시장 주요 전망

-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향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요 3대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Ford), 크라이슬러(Chrysler)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까지 5~6%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1999년~2012년 총 시장점유율은 22.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소비자 심리 위축 및 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이 침체되었음.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 및 원유가 상승 등도 소비자들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며, 자동차 구매를 지연시키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도 계속되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침체 지속이 전망됨.
- 향후 5년간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rossover-utility vehicle: CUVs)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업의 기존 주요 이윤창출 품목이었던 트럭의 판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ports-utility vehicles: SUVs), 중형 세단(mid-size sedan), 미니밴(mini-van)의 판매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장기간 미국 브랜드 자동차를 선호했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베이비붐 세대(Generation Y)의 미국 브랜드 선호가 줄어들고 있음. 미국의 주요 3대 자동차 기업은 지난 25년간 트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왔으나, 향후 이들 기업의 성공의 관건은 새로운 베이비붐 세대(Generation Y)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

문의 : 전문연구원 이은경(☎3779-6676)

twoek1982@koreaexim.go.kr